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에스더 찬양선교사, 노유라(유지인)

제목 : 요셉의 영적전쟁 성경: 창세기 41장 46-52절

Tag:요셉,영적전쟁,대한민국,사명,한국교회,구약성경,창세기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 41:46-52)

요셉은 비교적 빨리 출세한 사람이다.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사실 총리가 되기 직전의 신분은 죄수였다. 죄수 이전의 신분은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였다. 그 이전의 신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다.

그는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 험악하기 짝이 없는 형들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편애가 심해서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다행히 자기를 극진히 따르는 친동생 베냐민이 있어서 둘은 서로 의

지하면서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꿈과 꿈풀이에 관련된 일들이 많았다. 아직 어려서 함부로 말하게 됨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

형들 중에도 요셉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싫어해서 괴롭히는 형들도 있었다.

요셉은 성격이 청결했기 때문에 형들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자주 일러바쳤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화근이 되어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하였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요셉은 밑바닥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계시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인생 중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희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청원하였다.

얼마 후 바로왕은 이상하고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감옥 시절에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된 경험이 있던 관원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된다.

그 꿈의 해몽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 국무총리에 발탁되어 평생을 국무총리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아직

한국은 잘 준비된 나라가 아니다. 여전히 영적으로도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을 이어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비 되어가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한국교회는 요셉이 어려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상황 보다 더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있다.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지만, 사회구조나 의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퇴화되는 듯한 부분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정체현상이 여전하다. 군사적으로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방위 문제는 한국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호시탐탐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위대를 통해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제는 베트남도 국방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바야흐로 극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전쟁긴장지역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과연 언제쯤 평양에 특공대가 기동타격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시기를 다들 가늠하고 있다.

결국에는 북한에 자유주의 물결이 흘러들게 될 것이고, 한국은 급변하고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험하다.

유엔의 압력으로 동성애자들이 더욱 날뛰고 있고, 정치인들은 도덕

성 혼란에 대해서 모르쇠가 된지 오래다. 이미 이 나라는 무식한 자들, 예절을 모르는 자들, 욕심이 많은 자들, 버젓이 죄를 짓는 자들, 타락한 자들, 극악무도한 자들, 어른을 무시하는 자들, 이단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단들은 집단행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교회들은 원래부터 개교회주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일치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치된 힘으로 문제해결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결국 각개전투만 가능한 상황이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직 요셉 한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한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셨다.

우리의 기도제목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행동은 어렵게 되었지만, 성령께서 각 교회위에 계시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각개전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내공을 쌓고,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셋 부른 종말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자. 죄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말씀에 착념하고, 기도예 열심을 내고, 경제적으로 더 건강하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자. 강력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사용하신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다. 영적질서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경건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들을 키워내자. 한국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미래는 아주 어둡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얻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였다.

세월이 지났다고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요셉이 그토록 열심히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배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고 고백하였다.

요셉처럼 열심히 살고, 비록 혼자일지라도 경건한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본받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잊게 하실 것이며, 두 배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